

300-3-100. 신문조서(權五高 외 11명 치안유지법 위반) 16

■ 權五高 외 11명의 治安維持法 위반 및 出版法 위반사건의 豫審請求와 判事의 被告人 신문조사 기록 수록

- 權五高 등은 1925년 4월 18일 朴憲永의 집에서 고려공산당청년회를 조직, 공산주의 선전과 동지 규합을 하였고, 투사 양성을 위해 수십 명을 공산주의 연구생으로 모스크바에 유학시켰으며,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활약하였다.
- 1926년 6월 10일 ‘李王國葬’을 계기로 격문을 살포하고 독립선언을 하였고, 조선어교육을 주장하며 檄告文 및 선전문 5만 669매를 인쇄·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1925년 11월 新義州에서 조선공산당 및 조선공산당청년회에 관여했던 金料全·朴憲永 등 다수가 검거된 후 그 재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독립운동 음모에 가담하였다. 그러므로 1926년 刑 2390號와 併合심리를 求하였다.
- 判事의 피고인 신문조사는 1926년 10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 1926년 10월 7일에 權五高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고, 8일에 2회, 11일에 3회 신문조사가 있었다. 12일에는 廉昌烈·李智鐸의 신문조사가 있었고, 13일에는 金璟載, 14일에는 朴珉英·朴來源, 15일에는 閔昌植의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
- 1926년 11월 1일에 楊在植·李用宰, 2일에 金恒俊, 3일에 洪惠裕의 피고인 신문조서가 있었고, 孫在基는 11월 22일에 신문조서가 실시되었다.
- 1927년 3월 1일 金昌元·金洛鳳, 5일 權五高 4회, 7일 5회, 8일 6회 신문조사가 있었다. 9일에는 朴珉英·金璟載·朴來源 등의 2회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으며, 10일에는 廉昌烈·李智鐸·閔昌植·楊在植·白明天·李用宰·洪惠裕·金恒俊의 2차 피고인 신문조사가 있었다.